

전 남

새내기 공무원들 강진서 다산 정신 배운다

행안부-郡 협약 을 20차례 2000명 현대행정 하의 공직관 교육

조선 후기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1762~1836) 선생은 강진에서 18년간 유배살이를 하는 동안 많은 책을 저술했다. 이 가운데 48권 16책에 달하는 '목민심서'(牧民心書)는 많은 고금(古今)의 여러 책에서 지방관의 사적을 가려 뽑아 목민관(牧民官)의 자세와 도리를 밝힌 책으로 요즘 공직자의 지침서라 할 수 있다. 100년전인 조선 후기 목민관이나 현재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변함이 없다. 오는 3월부터 새로 공직생활을 시작하는 전국 새내기 5·7·9급 공무원 2000여명이 강진서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배운다. 강진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중앙 정계에서 배제된 유배생활의 실의에 빠지지 않고 목민관(牧民官)의 자세와 도리를 밝힌 '목민심서'의 산실. 이렇듯 다산 선생의 애민정신(愛民精神)이 깃든 강진에서 공직 생활의 첫걸음을 시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의미 깊은 일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강진군은 '2011년 전국 지자체 신규임용자 공직관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다음달부터 7월까지 매주 100명씩 2박3일간 교육을 입수 실행한다. 이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전담하지 않고 지자체인 강진군과 공동주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강진 다산수련원과 다산실학연구원 이 실무를 맡아 진행할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부제는 '다산을 통한 현대행정 하의 공직관 배우기'. 지방관으로 봉직하는 고을수령이 나라의 근본인 백성들을 섬기는 데 필요한 다산 선생의 사상과 실천덕목을 깊이 있게 체득하는 것이 주요 교육목표다. 입수 첫날은 '국가와 나 그리고

공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둘째 날에는 '다산과 나라사랑'을 주제로 ▲다산의 생애와 사상 ▲21세기 공직자를 위한 목민심서 다시 읽기 강의를 듣는 한편 다산초당~백련사~사외재~영랑생가를 체험하는 답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 날에는 '국가와 다산, 그리고 나'라는 분임토의를 끝으로 교육을 마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석무, 소설가 한승원, 다산실학연구소 겸임교수 황병기 등 지역은 물론 송재소(성근관대 교수), 최형선(서울대 행정대학원장) 등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된다. 이 교육은 다산초당과 강진의 문화유적을 활용하는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이 편성돼 있다. 매생이·국·오곡보리밥·된장국·간장·젓갈·나물 등 간편하면서도 맛있고 영양 높

은 강진산 식재료로 꾸린 '다산밥상'이라는 이름의 향토음식 밥상이 준비된다. 이를 두고 지역의 역사·철학을 두루 연구해온 조선대 이종범 교수(사학)는 "우리 역사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만큼 국가의 통치이념과 제도, 목민관의 자세 등 공직윤리 전반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저술을 남긴 분이 없다"며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이들이 선생의 작소(讀所 =귀양지)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강의를 맡은 다산실학연구원 황병기 박사는 "이번 교육은 다산선생이 강진에 오셔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저를 내놓았을 오늘날 이 지역이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산실로 인식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한편 지방자치체 이후 축제와 문화 관련행사가 늘면서 문화원 역할과 비중이 커지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된 강진문화원장에 김희웅(70)씨가 뽑혔다. 김 신임 원장은 지난 18일 강진문화원 회원 61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5%인 398표를 얻어 당선돼 다음달 25일 취임한다. 김 원장은 "4년 임기 동안 군민의 문화향수와 문화풍토 조성, 관내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행사와 문화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장흥 생약초 미국 진출

국내 최초 자체산표 수출 장흥산 8종·국내산 15종



장흥지역에서 생산하고 제조한 생약초와 한방제품이 미국에 처음으로 수출된다. 장흥군은 "장흥 생약초와 한방제품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구매자 초청 수출상담 활동을 벌인 결과 생약초 전문 유통회사인 (주)자연가족이 미국내 2000개 매장을 확보한 'B&A Health Products, Inc.'와 20만달러(15t) 수출 계약을 맺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생약초 한방제품 수출은 국내 최초로 판매대를 포함해 자체산표 수출길에 오르는 것으로 구기자, 결명자, 도라지, 헛개나무 등 장흥산 8종과 감초, 오가피, 느릅나무, 등골매 등 국내산 15종으로 구성돼 있다. (주)자연가족은 이번 수출을 시작으로

로 국내 생약초와 이를 활용한 생활 한방제품을 대중화하고 지역농가의 계약재배 등 협력을 통해 농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의 생약초와 한방 제품이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될 수 있도록 해외 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 국제 박람회 참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요즘 영암에는 '산수유지컬'을 위한 '여론몰이'가 한창이다. 공직자들은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총동원돼 있다. 거리 곳곳엔 '산수유지컬'에 지역 의 모든 것이 담겼다는 것 같은 축제가 뜰게 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한 기

더욱 큰 문제는 '산수유지컬'이 정부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군의회가 예산을 편성해줬지만 집행에는 종합 마스터플랜과 투융자심사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그렇다면 군은 여론몰이라는데 '산수유지컬'에 '열린'하는 영암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작 대다수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선 '산수유지컬'은 전남도의 특별감사가 예정돼 있다. '산수유지컬' 저지 영암군민대책위가 226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이다. 조은조간 '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감사개시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암군은 '군수가 하는 일을 반대하면 지역사회에 설자리가 없어지고, 심지어 영암을 떠나야한다'는 말까지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는 한 다. '산수유지컬'은 분명 군수가 아닌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다. 그러나 지금은 거꾸로 '산수유지컬'이 군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이 '열린'하고 있는 '산수유지컬' 홍보전은 그래서 군민부터 설득해야 할 것 같다. moon@

산수유지컬 '여론몰이' 왜?



문병선 <중부취재본부 기자>

장흥 문화원장에 김희웅씨... 내달 25일 취임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지방선거 이 상으로 열린 선거전이 전개됐던 장흥군 문화원장에 김희웅(70)씨가 뽑혔다. 김 신임 원장은 지난 18일 강진문화원 회원 61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5%인 398표를 얻어 당선돼 다음달 25일 취임한다. 김 원장은 "4년 임기 동안 군민의 문화향수와 문화풍토 조성, 관내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행사와 문화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한편 지방자치체 이후 축제와 문화 관련행사가 늘면서 문화원 역할과 비중이 커지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명된 강진문화원장에 김희웅(70)씨가 뽑혔다. 김 신임 원장은 지난 18일 강진문화원 회원 612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65%인 398표를 얻어 당선돼 다음달 25일 취임한다. 김 원장은 "4년 임기 동안 군민의 문화향수와 문화풍토 조성, 관내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문화행사와 문화영역을 넓혀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k-water 전남본부, 수질개선 연구원 간담회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석천)는 지난 25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본사 연구원과 공동으로 수자원 시설 운영방안 및 수질개선 등을 위한 연구과제 발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해로 4회째 열린 'k-water 연구원의 찾아가는 간담회'에서는 현장실무 중심 사례연구가 발표됐다. 또 간담회에 참가한 지역본부 현장

신비한 우주 천체 체험 "이곳이 딱"

고흥 우주천문과학관 준공... 천체망원경·전시관 등 갖춰 가족야영장·학술포럼·별자리 체험 등 상시 이벤트 개최

우주항공의 중심지로 부상한 고흥에 우주천문과학관이 최근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천문과학관은 사업비 67억원이 투입됐으며 도양읍 용정리 장기산 일대 66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섰다. 추진 4년여 만에 준공된 천문관은 밤하늘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천체망원경과 천체투영

시설을 갖추고 학술포럼, 별자리 체험 등 상시 이벤트 개최 등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당초 천문관을 우주센터가 건립되는 외나로로 국립 청소년우주센터 인근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접근성이 나빠 도양읍으로 변경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천문관 건립으로 우주 천체의 신비로움 체험과 과학 마인드 제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유일의 우주센터와 우주체험관, 국립 청소년우주센터 등과 연계해 특색있는 우주항공 관광상품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 우주천문과학관이 건립됨에 따라 전남지역에는 장흥, 곡성, 순천 등 4개소에 천문과학관이 운영되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에셋코리아). Includes contact info (062-236-3400), website (assetkorea.com), and a detailed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cross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 The list includes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for various types of buildings.